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부활절 후 제2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통57). 즐겁게 안식할 날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록 나뭇잎으로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해묵은 감정의 이파리들을 떼어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염된 넷물의 물고기가 등이 굽는 것처럼 탐욕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이 굽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릇된 원리를 중심에 놓고 살다보니 하는 일마다 엉망이요 사람들에게 상처주기 일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굽은 마음을 바르게 펴주시고 탐욕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주십시오. 모든 이의 바른 지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 교 독 문	40. 시편96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하진채 학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74(통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성경봉독	I. 잠29:25
	II. 수7:19-26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두려움으로
	II. 아골 골짜기 ... 김기석 목사
거뭇기도	다함께

찬 송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눈앞에 이로움을 볼수록 의로움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의 그릇된 즐거움은 내일의 크나큰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많은 이유를 둘러대며 부정직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감추려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반성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된 아골 골짜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앙강좌 / 손성현 전도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어린이에게 기독교교육이 필요한가?	기도 : 안길상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안홍숙 권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임주빈 백혜숙 김현영 최현옥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무를 심은 사람, 인위전

다시 가을이 찾아오자 징베이탕이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천수친 씨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징베이탕 최고의 지식인인 그녀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와서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넘었다. 중국 유수의 기관에서 연구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다가 퇴직했다는데, 주로 농번기에 찾아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을 돕는다.

한번은 바이완샹이 천수친 씨에게 힘들지 않냐며 왜 사서 고생하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때 그녀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제가 힘들지 않다고 하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인위전이라는 본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녀의 투지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어려울수록 참으라고 가르치고,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가르치고, 생명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귀중하다고 가르칩니다. 그에 비해 제가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작은 것이지요. 겨우 솔단지를 씻거나 받을 때는 정도의 일로 얻어 가는 게 너무 많은 셈입니다.”

천수친 씨는 베이징에 있을 때 몸에 성한 데가 없어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그런데 징베이탕에 온 뒤로 약 먹을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가까이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으니 아파서도 안 되고 인위전한테 미안해서 아플 수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바이완샹은 스무 살이나 어린 사람에게서 삶을 배운다는 천수친 씨야말로 본받을 것이 많은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가을은 수확이며 나무 심기며 일이 가장 많은 계절이자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계절이다. 가족과 친구 말고도 품삯을 주는 일꾼을 너댓 명은 불러야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을 탈 없이 갈무리할 수 있다.

바이완샹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이끌고 사류를 베러 갔다. 사류는 키가 작고 잔가지가 많다. 처음에는 사류도 외지에서 사다 심었는데 이제는 종자가 징베이탕에 터를 잡았다. 가을 조림 시기에 다 잘라내도 이듬해 봄이면 또 싹이 나고 3년만 지나면 무성해지는 번식력 덕에 가지를 얼마든지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옮겨 심을 수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뿔감

으로 훌륭한 나무인 동시에 어떤 수종보다도 방사림을 조성하는 데 알맞은 나무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사류는 가지는 너무 길게 자르고 구덩이는 너무 얇게 파는 실수를 저질러 나무를 몽땅 죽인 일도 많다. 모래 위로 목을 길게 내놓은 가지는 햇볕에 말라비틀어지고 추위에 얼어붙어 영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도 심어 보고 저렇게도 심어 보고 여름에도 심어 보고 가을에도 심어 보고, 그러면서 거듭한 실패를 밀천 삼아 지금 바이완샹은 생존율 95퍼센트를 자랑하는 사류 심기의 귀재가 되었다.

해가 갈수록 모래 언덕마다 특징이 생겼다. 비탈과 능선에 해를 이고 서 있는 나무들만 보고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인위쩐이 사막에 온 뒤 처음 한두 해 동안은 사방 어디로 가든 나무를 짊어지고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신호를 만들면서 다녔다. 바람이 없는 날도 특하면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게 모두 똑같은 모래 언덕의 연속이었다. 집이 너무 작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예 묻혀 버렸다. 친절한 바이완샹이 방향감각없는 아내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긴 나뭇가지에 수건이나 옷을 한 장 걸어 두지 않았다면 인위쩐은 길을 열두 번도 더 잃었을 것이다.

깃발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녀 곁에는 바이완샹이 있었고, 지금은 늙었지만 그때는 한없이 영민하던 노새도 든든한 동행으로 그녀의 길을 지켜 화를 면했다. 돌아보면 얼마나 아득한 길이었는지... 모래 언덕의 능선과 비탈 중 그녀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고, 그 발자국마다 짜디짠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다.

얼마나 많은 나무의 목을 바람이 분질러 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묘목을 모래가 삼켜 버렸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징베이탕의 모래 언덕은 오늘날 거대한 숲이 되었다. 어느 해 봄에는 어린 나무의 무덤이 되지만 땅에서 놀랍게도 싹이 돋았다. 모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던 생장점 하나가 기사회생한 것이었다. 생명은, 목숨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길 긴 것이다.

- 인위쩐은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20여 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이미애, 「사막에 숲이 있다」 중에서

나 무

내 결코 보지 못하리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단물 흐르는 대지의 가슴에
끓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바라보며
있 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

눈은 그 품 안에 쌓이고
비와 정답게 어울려 사는 나무

시는 나 같은 바보가 만들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느님뿐

- 조이스 킬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김정숙 김준호 곽혜자 박병구 김정애 배삼순
권호진 오자영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강지은

월정헌금:

고속이 김지현 김지은 송임희 조순덕 배부례 이광섭 김수연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김영순 박상규 정현숙 이현순 백성래

감사헌금:

김희우 박옥식 박창운 허정윤 박계순 박남순 전성오 한훈식 오정숙
전세종 오정숙 권채영 백숙현 김금화 김민하 김대규 방극숙 가나안속
무명6

생일감사헌금:

정현창 고재중 고유비

녹색꿈 헌금:

김기석 김희우 한성건 박병선 엠마오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성실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원인해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4월 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강사는 손성현 전도사님이시고 강의 주제는 '어린이에게 기독교교육이 필요한가? - 한국의 교회 현실과 기독교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입니다.
3. **연합속회** : 이번 속회는 4월 30일(목) 11시에 연합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베다니 속 식사당번 : 베들레헴 속
4. **1남선교회** : 1남선교회에서 부부동반으로 안면도 꽃박람회를 갑니다. 월요일(27일)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 **신앙다지기** : 3기 이수자 - 관혜자 박영희 성지현 송 샘 윤수진 정두리 조순덕. 4기는 5월 9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8주간 진행됩니다. 3월 이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산행** : 이번 주 2일(토)에 청파산악회에서 예봉산(남양주)으로 등산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전 8시40분, 용산역 국수행 중앙선 승강장으로 9시 10분, 팔당역으로 10시 1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7. **101주년** : 다음 주일(3일)은 교회 설립 101주년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 구성실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찬양제로 모입니다.
8. **신앙실천** : 공원과 같이 한적한 곳을 거닐면서 시편을 한 편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한상익 이준하 (다음 주 : 김대근 최종미)

새교우 소개

이국노 (4남)

김민화 (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